

KB STARS

Magaz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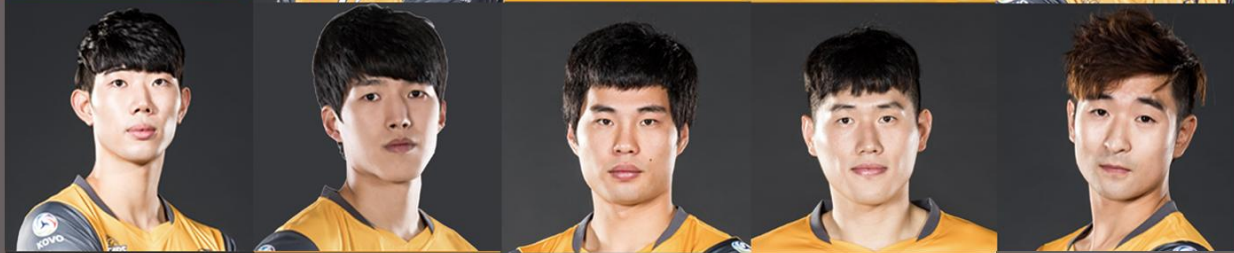
제 7호

2015-16시즌 Preview

강성형 감독님 인터뷰

아듀! 이경수 은퇴

베테랑 권영민의 도전



[1R KB경기안내]

10/13(화) vs OK저축은행_구미

10/18(일) vs 우리카드_구미

10/22(목) vs 한국전력_구미

10/25(일) vs 현대캐피탈_천안

10/29(목) vs 삼성화재_구미

11/02(월) vs 대한항공_인천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발행 : 2015년 10월 13일



KB STARS 배구단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새 이름으로 !

지난 6월 LIG GEATERS 배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KB 금융그룹이 배구단의 모기업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KB STARS로 팀명을 변경한 것이다. LIG GREATERS 시절 2012년 수원컵 대회를 우승하는 등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즌은 구미에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들은 과거일 뿐이다. 코칭 스태프 및 선수단은 KB STARS라는 희망의 새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쓰고자 한다.

베테랑 권영민과 테크니션 마틴의 합류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세터 권영민의 합류는 KB STARS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현란한 토스워크뿐만 아니라 코트위의 사령관으로서 리더십은 KB STARS 배구단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청주 KOVO컵 대회에서 팀에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안정적인 토스워크를 선보이며 조별리그 전승을 이끌었다. 한편, 테크니션 마틴의 V리그 컴백은 화룡정점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항공에서 두 시즌을 보낸 마틴은 세계적인 테크니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상대의 블로킹을 이용하는 공격과 자로 켜듯 날카로운 서브는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무엇보다 마틴의 강점은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으며 한국배구에 이미 적응했다는 것이다. 최고의 세터 권영민과 테크니션 마틴의 만남은 내년 봄까지 쪽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강성형 감독

2015-2016 V리그의 또 다른 재미는 40대 감독들의 지략대결이다. 각 팀의 사령탑은 저마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지만 KB STARS 강성형 감독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평소에는 자상한 성격으로 팀원들을 다독인다. 하지만 선수들의 안일한 모습이 보이면 야간훈련을 감행하는 등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이번 시즌 강성형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초반 팀 분위기이다. 여태껏 초반에 쉽게 무너져 시즌 내내 팀에 패배의식이 만연했던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따라서 V리그 1, 2라운드 배수의 진을 치고 100% 전력으로 매 경기 임할 것이라고 한다.

강력한 서브는 새로운 무기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것은 강력한 서브이다. 2011-2012, 2012-2013 V리그 두 시즌 서브왕 마틴이 돌아왔다. 강력한 파워에 예리함까지 겸비한 그는 얼마 전 미디어 데이에서 "항상 서브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학부 3관왕의 주역 슈퍼 루키 황두연에게도 서브에이스를 기대한다. 대학리그에서 서브 1위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V리그 리시버들을 긴장 시켰다. 팀 내 연습 경기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배짱 있는 서브를 구사하며 이번 시즌 칼을 갈고 있다. 황두연의 선배 김요한도 부상을 딛고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100% 기량을 발휘 하지 못했지만 이번시즌 마틴, 황두연과 함께 KB STARS의 서브를 책임질 것이다.



강성형 감독 인터뷰

2015-16시즌을 시작하는 감독님의 각오는?

“진정한 땀에서 답이 나온다”

2015-16시즌, KB 스타즈의 고공행진을 위해 비시즌기간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V리그를 준비했습니다. KB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코치진, 선수들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인 드래프트에서 팀에 필요한 신인선수들이 합류해 전체적인 전력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죠. 권순찬 코치가 대한항공에 있을 때 마틴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격이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든든합니다. 팬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만큼 좋은 경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KB손해보험 감독 강성형



1. 구체적 전략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기존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100% 전력은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1,2 라운드에 강한 집중력으로 시합에 임할 생각입니다. 항상 5등,6등 하다보니 시즌이 흐르면서 자체적인 팀 분위기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라운드는 잠시 생각하지 않고 초반 라운드에서 최대한 승리를 해서 잦은 패배로 의기소침해져 있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은 목표죠..

2. 이번시즌, 신인선수 기용계획은..

정기혁 선수나 이경수 선수와 같은 고참 선수들이 부상이 심해 시즌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포지션에 신인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들어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잘 해준다면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물론 신인선수들도 있지만 여름 내내 성실하게 준비하며 고생했던 기존 선수들한테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듀 ! 이경수, 부상으로 끝내 은퇴 KB의 영원한 가족, 그의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배구 인생의 심표를 찍다.”

1.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부상으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 몸 컨디션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 시즌을 앞두고 훈련중에 허리 통증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많은 고민을 했고, 감독님과 깊은 대화 끝에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응원해주셨던 팬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

부족하지만 그동안 많은 응원보내주셨던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테랑 세터 권영민의 새로운 도전!



프로 배구 최고의 세터 권영민

천만관객 동원 영화 베테랑의 황정민의 극중 역할은 베테랑 형사이다. 술한 흉악범 검거와 허벅지의 칼자국은 훈장처럼 고단했지만 성공적인 형사 생활을 대변해준다.

KB스타즈 배구단의 세터 권영민 또한 베테랑이다. 13년 전 현대캐피탈에 입단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차며 화려하게 실업팀에 데뷔하였다. 프로 배구 원년 우승, 2005-2006 시즌 통합 우승, 2006-2007 시즌 챔피언 왕좌에 오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세터로 이름을 날렸다. 13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시즌 서재덕과의 트레이드 사건 그리고 루키 이승원과의 주전 경쟁은 베테랑이지만 자존심이 상할만한 일들이었다.

KB스타즈에서 새 출발



2015년 베테랑 권영민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13년 만에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다. KB스타즈로 이적은 그의 20년이 넘는 배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첫 단추는 순조롭게 끼워졌다. 지난 7월 청주 코보컵에서 권영민은 팀내 주축 선수들인 김요한, 하현용과 잘 어우러지며 조별예선 3전 전승을 기록한 것이다. 그의 전성기 못지 않은 토스 워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충분했다.

영화에서 베테랑 형사 황정민은 경찰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재벌 2세 유아인을 목표로 수사에 착수, 검거에 성공한다.

과연 베테랑 권영민은 KB스타즈 배구단과 봄 배구 도전에 성공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매거진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신청 방법

KB스타즈 팬이라면 누구라도 OK!

하나! - 간단한 사진이나, 글을 준비한다!
(선수과 추억, 기억에 남는 경기, KB스타즈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

둘! - kbstarsvc@naver.com 혹은
KB스타즈 페이스북 메세지로 사연을 신청한다!

셋! - 발표를 기다린다!

1등!

매거진 사연 게시 + 선수와 포토 타임
레플리카&싸인볼

2등!

KB스타즈 페이스북 업로드 + 레플리카

3등!

KB스타즈 페이스북 업로드 + 싸인볼

(신청 기한: 10월 13일 ~ 11월 2일)